

## 코스콤·IBK투자증권 자본시장 최적화된 데이터기반 RegTech 개발

- 금융사고 예방·금융소비자 보호, 실시간으로 한 눈에
- 직관적인 디스플레이…IT 몰라도 데이터 분석 가능
- 핀테크 기업들과 RegTech 일자리 창출
- 향후 금융클라우드로 서비스 확장 가능



- 코스콤(사장 정지석)과 IBK투자증권(사장 김영규)은 자본시장 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 활성화를 위해 RegTech(이하 레그테크)1)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그 일환으로 양사는 4일 레그테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식을 갖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양사가 공동 개발한 레그테크 서비스는 자본시장에 최적화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내부 통제시스템이다.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 축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데이터와 사용자 리포트를 제공한다.

### 1) 레그테크(RegTech)

-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 기술
- 양사는 이번 레그테크 구축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서비스 설계와 모의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본사 컴플라이언스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이후 즉각적인 소명 요구절차 등을 거쳐 사전·사후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가능해졌다.
- 내부의 비정상 거래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만든 직관적인 시각화 기능도 장점이다. IT를 잘 모르는 컴플라이언스 직원도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예시) 지점별 출납금액 RegTech 대시보드



□ 특히 코스콤이 구축한 레그테크 서비스는 향후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코스콤 핀테크 테스트베드에는 ▲챗봇 및 AI 대화엔진 활용(페르소나: 대표 유승재) ▲빅데이터 분석(지니테크놀로지스: 대표 이영욱) ▲상품운용 리스크관리(에이치투오시스템테크놀로지: 대표 임종혁) ▲고객투자분석(세븐핀테크: 대표 김종현) ▲Legal Tech(아미쿠스렉스: 대표 정진숙)이 입주해 있다.

□ 코스콤은 하반기에 구축될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에서 레그테크 서비스를 금융 특화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클라우드 내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패턴분석하고, 이를 통해 준법감시에 도움이 될 다양한 서비스들을 금융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IBK투자증권 김영규 사장은 “양사간의 공동 노력으로 개발된 본 시스템이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하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자본시장 최초로 데이터 기반의 레그테크 서비스가 실제 가동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클라우드 활성화, 양질의 핀테크 일자리 창출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코스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